

여름 밤하늘에는 낭만이 있다! (1)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초 여름 별자리 여행'

최근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배출된 것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여행지가 인기다. '별자리 여행'이 대표적. 별자리 찾기, 천체망원경 관람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낭만적인 '별자리 여행'을 떠나보자.

➔ 떠나기 전 알아야 할 5분 상식

별자리를 찾기에 가장 편하고 쉬운 계절은 겨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밤하늘은 여름 하늘일 것이다. 날씨가 춥지 않아 밤에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여름 밤하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은하수. 북쪽에서 남쪽 하늘에 이르기까지, 은하면의 다양한 성단(별들의 집단)을 망원경을 통하여 맘껏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별을 보기 좋은 날은 언제고, 별자리 여행을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별 보기 좋은 날은?

밤 일기예보를 정확히 파악

보통 일기예보에 표시되는 것은 낮 동안의 날씨이기 때문에 실제 별을 관측하는 밤 날씨와는 다른 경우가 있다.

기상청 사이트의 위성사진으로 구름의 이동 방향을 살펴거나, 방문 당일 천문대에 날씨를 한 번 더 문의하고 가는 게 안전하다.

바람이 없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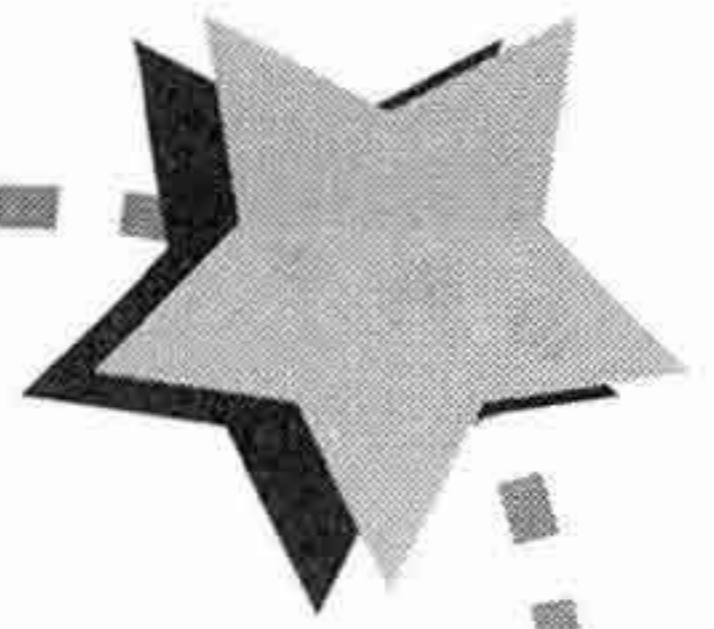
구름과 바람이 없어야 별이 선명하게 보인다. 통상 노을이 예쁘면 밤에 별도 잘 보인다. 특히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날에 별이 더 선명하다.

달빛은 어두워야

별을 관측하려면 달빛이 강한 때를 피해야 한다. 환한 달빛에 별빛이 묻히기 때문. 성운이나 성단은 달빛이 없는 음력 그믐에 가장 잘 보인다. 즉, 달이 이지러지는 음력 20일경부터 다음달 4~5일까지다.

달 관측도 볼거리

첫 방문이라면 달을, 두 번째 이상 방문이라면 성운이나 성단을 관측해보자.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천체망원



경으로 봐도 자세히 보이지 않는 반면, 달은 일반 망원경으로도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보름이 아닌 상현(음력 6~7일)이나 하현(음력 20~21일) 때는 운석이 달에 충돌한 자국인 크레이터가 더 자세히 보인다.

➔ 별자리 여행에 꼭 필요한 준비물

별자리 안내 책

별자리 여행만큼은 '홀쩍' 떠날 수 없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일쑤다.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별자리 안내 책자를 보고 여행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별자리에 얽힌 전설을 곁들여 감상하면 더욱 흥미롭다.

두툼한 외투

천문대는 대개 산꼭대기나 오지에 있다. 낮엔 따뜻하더라도 산중의 밤은 춥다. 별자리 관측은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긴팔 옷옷과 모자, 담요 등을 꼭 챙겨야 한다.

간단한 필기도구

간단한 필기도구를 준비해 관측 날짜와 시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면 다음에 또 별자리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넉넉한 간식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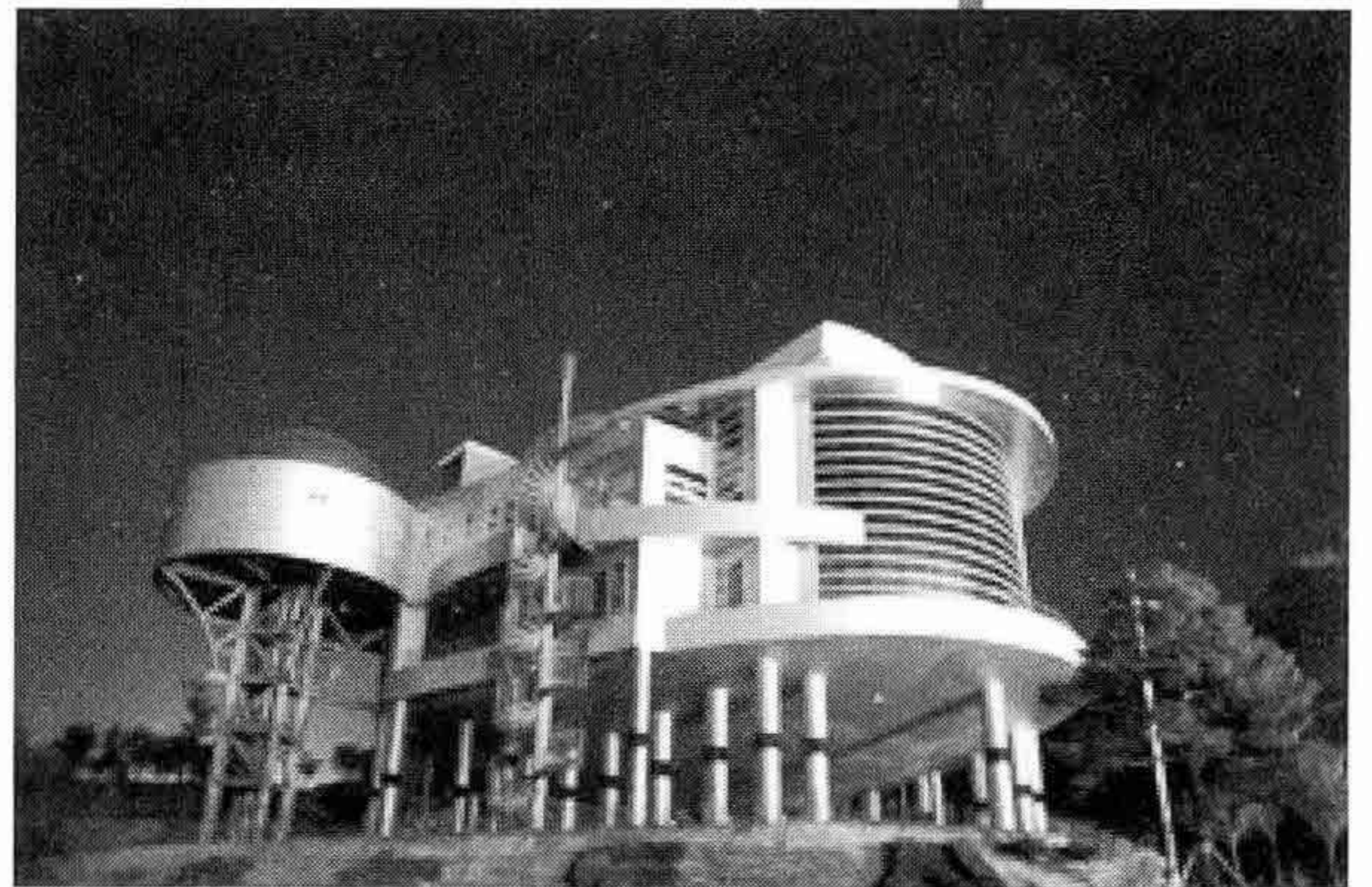
밤늦게까지 별을 보며 밖에서 떨다 보면 배고파지게 마련. 요기를 할 간식거리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 천문대엔 매점이 없다.

붉은빛 손전등

등 붉은색 불빛 계통의 손전등을 준비하거나, 일반 손전등이라면 빨간색 셀로판지로 불빛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 번 감싼다. 붉은색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데 방해를 덜 하기 때문이다. 걸을 때마다 불빛이 반짝이는 어린이용 신발도 피해야 한다. 또 늦게 도착한 사람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끄는 센스도 필요하다.

디지털 카메라

화려하고 현란한 별자리를 천체망원경으로만 보기엔 너무 아쉽다. 콤팩트형 디지털 카메라로도 튼튼한 삼각대만 있으면 별들의 일주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다. 또 창고에 묵혀둔 낡은 필름 카메라도 렌즈만 있으면 언제든지 OK. 단, 관측 도중에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원칙. 카메라 플래시가 한번 터지면 관측에 큰 지장을 준다. 눈이 다시 어둠에 적응하는 데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 여름에 볼 수 있는 별자리 5

별자리를 찾는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북두칠성이 속한 '큰곰자리' 나 '카시오페이아자리'다. 이 별자리들은 천구의 북극에 매우 가까이 있어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볼 수 있다. 대개 봄이나 여름에는 북두칠성을,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카시오페이아자리를 기준으로 다른 별자리들을 찾는다. 북두칠성은 별 7개가 국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늦겨울 밤하늘에 북동쪽 지평선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늦봄에서 초여름쯤 하늘 높이 떠오른다.

거문고자리

5~8월쯤에 볼 수 있으며 여름밤에 떠 있는 별들 중 가장 밝다. 작은 삼각형과 사각형이 붙어 있고, 은하수 서쪽에 있다. 직녀성이 여기에 속한다.

독수리자리

은하수 한가운데 있으며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제우스신이 변장한 모습이라는 설화가 깃들여 있다. 견우성이 여기에 속한다.

백조자리

여름 대삼각형의 가장 북쪽에 있는 별인 데네브(1등성 중 가장 어두운 별)가 속한 별자리로 '북천의 십자가'로도 알려져 있다. 은하수를 배경으로 남쪽으로 백조가 날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궁수자리

밝은 별들이 모여 활을 쏘는 사람, 또는 주전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 손잡이 부근에 있는 별 6개는 국자 모습인데, 북두칠성과 닮았다고 해서 남두육성이라 부른다. 장마가 지난 한여름 밤에 남쪽 하늘 높이 떠오른다.

전갈자리

은하수 남쪽에서 밝은 별들이 S자 형태로 늘어서 있는 모습. 머리엔 큰 집게가, 꼬리엔 독침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며,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붉은색 별인 안타레스가 있다. 전갈자리는 남쪽 지평선 부근에 있어서 높이 떠올랐을 때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 : 우먼센스]

